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서포터

군포도시공사 | 조민아 보건관리자

글 윤혜원 사진 김지원

이달의 한 마디

“보건관리자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포터”



군포도시공사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시외버스정류소,
환경관리소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득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조민아 보건관리자는
군포도시공사의
조력자로서 많은 사업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새내기 보건관리자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2007년 설립된 군포도시공사에는 약 300명의 노동자가 본사와 체육레저부, 교통관리부, 환경자원부, 개발사업부에서 시민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군포도시공사는 조민아 보건관리자가 올해 보건관리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으로, 새내기 보건관리자답게 그의 포부가 당차다.

“이전 직장에서는 5년간 현장 근무자로 일했어요. 좀 더 전문적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제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죠. 다행히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간호사가 아닌 산업위생사 자격을 갖춰 군포도시공사 보건관리자가 되었다. 만성 스트레스나 근골격계질환과 같이 직업병에 대한 부족한 전문지식은 공부해 알아가고, 노동자들을 위한 마인드케어 프로그램 등을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중이다.

체육센터와 재활용센터, 공영주차장 등 15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조민아 보건관리자는 매일 현장을 오고 가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연령대와 직무가 다양한 만큼 모든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증진 희망교육 및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을 원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피로를 날리는 참여형 교육

조민아 보건관리자가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부분이다. 신체 기반 안정화 기법인 'LCT(Living Calm Technic)' 프로그램, 사상체질 진단과 체질별 스트레스 관리 방법 안내,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찾아가는 정신건강 보호서비스' 등 매년 새로운 교육을 추진하는 중이다.

“군포도시공사는 작업 특성상 야간근무자도 있고 교대 근무자도 많은 편이에요. 특히 야간작업을 하는 교대근무자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수면장애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있어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제각기 다른 만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조민아 보건관리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싶지만, 일부 사업장에는 필수인력이 남아있어야 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민아 보건관리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차를 늘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대근무로 평소에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도 회차가 늘어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일을 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스트레칭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 끝나고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힘이 많이 나요.”



사업장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조민아 보건관리자는 스스로를 현장에 강하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업장을 오가며 겪는 애로사항을 묻자 ‘없다’고 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입사하자마자 모든 사업장에 한 번씩 다 가서 노동자들이 제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야 소통도 쉬워지고, 협조를 요청할 때 수락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해 주시니까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업장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최근 환경관리 시설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약 1.5km 떨어진 ‘새활용 타운’에서는 군포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여 자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요 시설

로는 재활용품 선별·압축 작업장, 재활용품 적환장, 그리고 폐형광등 적환장 등이 있는데, 소음작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민아 보건관리자는 노동자들이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요청을 반영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난다’고 말한 그는 내년에는 각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성별, 나이에 따라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도 군포도시공사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이 건강히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시설을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건관리자가 되겠습니다.”